논어 17편 양화 16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古者民有三疾，今也或是之亡也。古之狂也肆，今之狂也蕩；古之矜也廉，今之矜也忿戾；古之愚也直，今之愚也詐而已矣。」

독음 · 자왈 고자민유삼질 금야혹시지무야 고지광야사 금지광야탕 고지긍야렴 금지긍야분려 고지우야직 금지우야사이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옛날의 큰 뜻·자존심·어리석음에는 솔직함이나 절제가 남아 있었지만, 당시에는 방탕함·분노·속임수로 변했다고 탄식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古 옛 고 고 / 者 놈 자

民 백성 민 민 / 有 있을 유 / 三 석 삼 삼 / 疾 병 질 질

今 이제 금 금 / 也 어조사 야 / 或 혹 혹 혹 / 是 이 시 시

之 갈 지 / 亡 망할 망 망 / 狂 미칠 광 광 / 肆 방자할 사 사

蕩 넓고 클 탕 탕 / 矜 불쌍히 여길 긍 긍 / 廉 청렴할 렴 렴 / 忿 성낼 분 분

戾 여그러질 려 려 / 愚 어리석을 우 우 / 直 곧을 직 직 / 詐 속일 사 사

而 말이을 이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